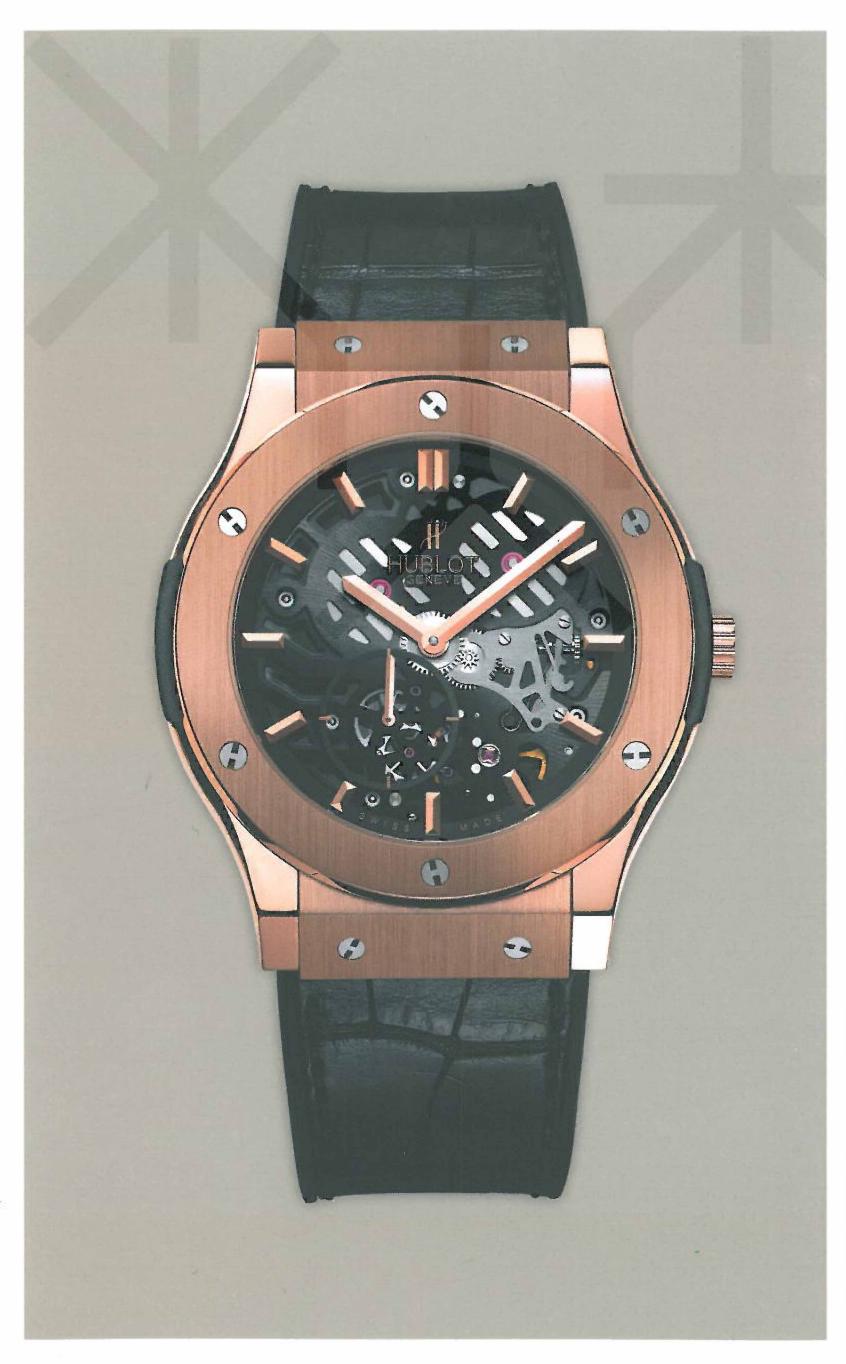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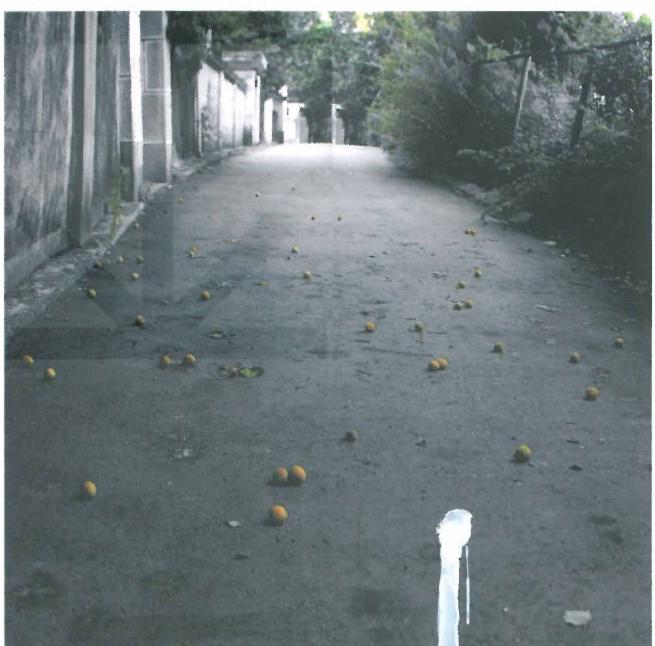
NOBLIAN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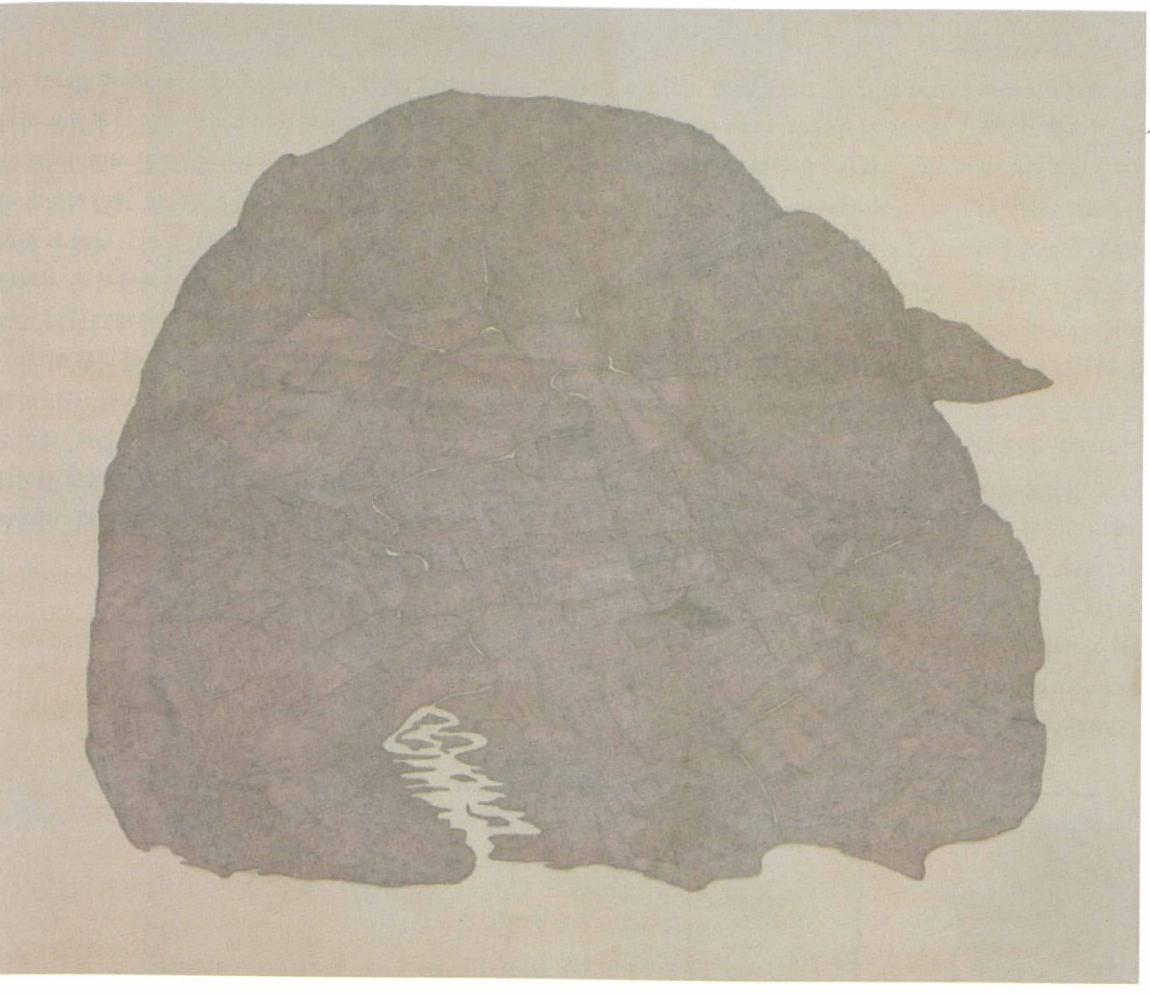
THESHILLA

ISSUE 159 / OCTOBER / 2013











'Untitled', 김홍주, 2007, 캔버스에 아크릴릭, 236×201cm (이미지 국제갤러리 제공)